

1. 예수께서는 “아직 이를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혜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직후였지요.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 직후에 있는 걸로 보아, 이때는 이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오셨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전이지요.
2.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긴 해도, 쫓기듯 했을 것입니다. 아직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게다가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란, 그걸 감당할 만한 수준도 안되지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 챕터를 성령님께 넘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요 16:13a).”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다한 말들일랑 그분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것은 곧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4. 보혜사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계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보혜사의 그 책망이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게다가 14 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그가 이기적이지 않음을 뜻하지요.
5. 보혜사 성령은, 자기가 아닌 타자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세상 조차도 그분을, 진실하고 온전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그분의 책망을 듣고, 또 그 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도, 보혜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는, 그가 신이라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7.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 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까지는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종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8. 그때까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배웠던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간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은 사실, 성령님의 뜻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9.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고 계십니까? 도대체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어떤 콘텍스트에서 나온 말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모르십니까?
10.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요. 그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그 말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 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강도 외에는 “조금 있다가 예수를 본” 자가 없는 것입니다.

11. 23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아무 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랬던가요?

12. 요한복음 21 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디베랴 호수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아무 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 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요. 제자들이 큰 물고기 153 마리를 끌고 육지에 올랐을 때, 예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13. 12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에는, 그들이 아무 것도 예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 아니까!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14. 그러니까, 부활 전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스승의 말씀이라고 해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소위 깜량도 안됩니다. 그러나 언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 이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15. 오늘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물을 이유도 없지요. 그렇다는 것은, 곧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도 오셨지요.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미 인도하신 것입니다.

1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그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줄을 알고, 또, “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하신 것, 그것이 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17.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확실히 해 두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 절 초반을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18.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했다가 다시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건 그의 죽으심 때문에 근심하던 제자들이 그의 부활로 인해 다시 기뻐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들이 그런 변곡점을 맞이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지요.

19. 과연 누가 우리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가? 간단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 정답이 이 문장의 “근심”과 “기쁨”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께서 그들을 보려 하시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20.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이 시발점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심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21.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의 원인이 그의 부활과 그의 만나주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보리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2.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의 11장과 12장 사이에 큰 전환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11장까지는 누가 구원의 원인인가?를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23. 그 성령이 무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스스로의 것이 아닌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지요. 또 자기가 아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원래 아버지께 있던 것인데 아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아들이 그것을 성령께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아 알고 믿어서 기뻐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24. 조금 비유로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대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인에게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 난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덕분인 것입니다.

25.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결혼했는데 배가 점차 불러오고 뱃속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이 꿈틀댑니다. 가끔 예일리언처럼 배 이쪽에서 불쑥 솟아 나와서 저쪽으로 돌아눕지요. 근심되십니까? 근심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아기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무언지 모르는 상태라면!

26. 그러나 그것이 아기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낳기 전이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 달 동안이라도 배를 내밀고 다니지요. 허리띠를 습관적으로 졸라매던 여자가!

27.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또 세상의 의에 대해서도 책망하시고, 다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밀스런 경륜들을 진리로 우리 앞에 드러내시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8. 무엇으로의 자유입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지요. 율법이 우리를 잡아끌고 들어가려는 그 무저갱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려하는 그 쏘는 것으로부터의 회피인 것입니다.

29. 왜 성경을 읽지 않았는가? 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았는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새벽기도 안했는가? 남들도 와줄 때 너는 뭐했는가? 남들 땀흘려 봉사할 때 왜 낙태하게 놀았는가?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래서 너는 댓가를 반드시 받아야 해!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질책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30. 바울도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고전 15:55~57)”한다고 했습니다.

31.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 24 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버킹검입니까? 결국 구하면 받으리라? 그래서 바라던 욕망이 채워지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

32.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그런 우상의 전각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의 결론이, 예수믿고 천당, 기도하여 만사형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란 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 받을테니까? 그럼, 이것이 이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33. 다시 23 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아니, 왜 묻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21 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때는 고기 잡던 자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이지요. 조반을 준비하는 디베라 호숫가의 그가, 주님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34.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침묵하게 될 그들에게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요 16:23)”고 하십니까? 구하지도, 찾지도, 묻지도 않을 자들에게, 도대체 무얼 또 구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이시지요.

35. 어떤 성령?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성령! 그들에게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또 예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실,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해산의 근심을 생명의 기쁨으로 대신하실 성령!

36.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24 절 마지막에, “구하라. 그리하며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